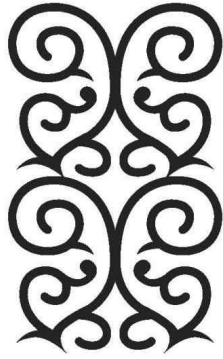


세션 2



아시아 전통 줄다리기와
무형유산 공동체





【사례발표 1】



캄보디아의 줄다리기(Teah Prot)와 쌀 재배 공동체

시온 소페아리트 |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사무관, 왕립예술대학 강사

1. 들어가는 말

대부분의 아시아인에게 그렇듯, 캄보디아인에게도 쌀은 다용도로 사용되는 필수품이다. 쌀은 캄보디아에서도 주식으로 사용되지만 모든 종교 의식 중에 필수적인 제사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놀라운 것은 쌀이 네안 프로페이(Nean Propey)라고 불리는 여신으로 숭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쌀은 프레흐 메(Preah Me, 8 월의 어머니)로 불리어 지기도 하는데, 지신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매년 충분한 쌀을 얻는 것이 쌀 재배농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위해 여러 기술들과 도구들이 개발되었고, 쌀농사와 관련된 전통 의식들과 민속놀이들도 함께 거행되어왔다. 특히, 이런 의식들은 ‘정령숭배’를 하는 것이거나 정령숭배를 지향하는 특성이 있다.

마을 원로들에 의해 운영되는 각 공동체는 로앵 네악 타(Loeng Neak Ta), 포운 프놈 스톱(Poun Phnom Srov), 출롱 첻(Chlong Chet, 시농을 알리는 축제)과 같은 의식들을 행한다. ‘로앵 네악 타’는 ‘네악 타’를 달래서 주민들에게 건강과 번영 (예를 들면, 쌀농사가 잘 되고 좋은 작물을 얻도록 충분한 비를 내려주는 것)을 가져다 달라고 비는 공동체의 의식이다. ‘네악 타’는, 마을과 마을의 농경지들을 상징하는 ‘토지(土地) 신(神)’이다. 그는 작은 오두막, 혹은 깨진 동상, 바위와 개미집 둔덕(역주 : 열대지방에서 개미의 활동으로 토양이 작은 언덕 모양으로 쌓여진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포운 프놈 스톱은 ‘산더미 같은 쌀을 만드는(쌀 산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산

은 다가오는 해에 쌀이 풍성하도록 기원하는 것이다. 이 행사에는 ‘하우 프로롱 스롭(Hau Prolung Srov, 쌀의 영혼을 부르는 의식)’이라는 특정한 의식을 거행한다. 캄보디아인은 자신들 속에 19개 영혼이 내재한다고 믿는데 이 영혼들은 매우 연약해서 유체이탈할 수 있고, 영혼들이 몸을 이탈할 때,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된다고 여긴다. 그런 이유로, 영혼 전체를 몸 안에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완벽한 영혼을 가진 사람(Prolung)은 건강하지만, 그렇지 않은 유체이탈된 사람은, 그 도망간 영혼들이 몸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의식을 해야만 한다. 캄보디아인은 쌀에도 19개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품질 좋은 쌀을 재배하기 위해 볍씨 재배(벼를 자라게 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에 착수하기 전에 ‘쌀의 영혼을 부르는 의식’을 진행하는데 볍씨가 건강하면, 좋은 작물이 생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 즐롱 췌은 마을 사람들이 설 명절 마지막에 기념하는 의식인데, 이것은 쌀 재배시기를 알리는 축제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몇몇의 특정한 전통놀이를 하는데 이 놀이들은 건강, 번영, 풍년을 쌀 재배농가 공동체에 가져오기 위해 치르는 것들이다. 그런 민속놀이 중 하나가 ‘줄다리기(Teah Prot)’다. 캄보디아의 전통 줄다리기는 고유의 뚜렷하고 독특한 특성도 있지만 아시아의 쌀농사 재배지역에서 나타나는 줄다리기에 뿌리를 둔다는 유사점이 있기도 하다. 본 발표에서는 캄보디아의 쌀 재배농사 공동체에게 이 민속놀이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 그리고 어떤 일이 미래에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의례적인 민속놀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2. ‘줄다리기(Teah Prot)’란 무엇인가?

크메르어로, 떼안 프룻(Teah Prot)은 명사 떼안(Teah)과 프룻(Prot)이 합쳐진 복합명사다. 떼안은 ‘잡아당기다’라는 의미고 프룻은 ‘줄’, 전통적으로는 버팔로나 소가죽으로 엮어 만든 줄이다. 그러므로 떼안 프룻은 문자적으로 ‘버팔로나 소가죽으로 엮어 만든 줄을 잡아당기기 위한 것’을 뜻한다. 그러나 더 정확한 영어 표현으로는, ‘줄다리기가 더 적합하다. 이 ‘줄다리기는 보스 양콘(Bos Angkonh, 양콘이라는 씨앗 또는 견과류 같은 것을

던지는 것), 출 츠호웅(Chol Chhoung, 보자기로 썬 공 던지기)과 라칸생(Lakanseng, 손수건 숨기기) 등의 다른 민속놀이들과 같이 하기도 하지만, 캄보디아의 전통의식 중 떼안프룻이 가장 중요한 전통놀이를 간주된다. 캄보디아인이란 줄다리기 경기를 접했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보기는 했을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줄다리기의 인기와 유행은 수백 년간 뿌리 내려온 것으로 캄보디아 농업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암시해 준다.

전통적으로 캄보디아는 4월 중순에 설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 줄다리기 떼안프룻 축제를 시작한다. 이 경기는 주로 널찍한 공간이 있는 불교사원이나 마을의 넓은 공터에서 벌어진다. 공간이 없다면, 마을 사람 집 앞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보통은 오후에, 경기장¹⁵에 줄을 놓은 뒤 경기장 바닥에 한 중심선을 긋거나 아니면, 줄 위에도 중앙을 표시하기 위해 눈에 띄는 색깔 끈을 묶어 두기도 한다. 경기 진행 방식은 두 팀으로 나뉘(일반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로 나눈 팀) 서로 경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각 팀은 바닥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놓여있는 줄을 잡는다. 그리고 나면, 심판이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일에서부터 셋을 세기 시작한다. 때로는 심판이 ‘약(yak)’이라고 말하거나 세 번을 외침으로 양 팀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그 소리를 듣고 각 팀이 순서대로 ‘헤오우이(heouy)’라고 외친다. 경기의 흥을 돋우기 위해 경기에 드럼이나 트로르(tror, 현악기의 일종)이 등장하기도 한다. 드러머는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느 한 팀이 이길 때까지 사기를 높여주는 응원을 한다. 트로르의 경우엔 선수들과 관객들이 노래하거나 춤출 수 있도록 연주한다. 한 팀이 다른 팀의 줄을 중앙선 너머로 끌어당기면, 승리하게 된다.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벌칙(betting)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아도, 통상적으로 행하는 벌칙이 있다. 어느 한 팀이 승리했을 때 진 팀을 치거나 마치 엉덩이에서 먼지를 털어내듯, 진 팀 사람들의 몸에서 자신들의 엉덩이를 털어낸다. 이런 행동은 크메르어로 케트(Ket)라고 한다. 이 내기는 비를 부르는 의식의 일부이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사원의 승려(anchar)가 밧줄을 자르는 의식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 밧줄이 경기 중에 끊어지기도 한다. 요즘에는 밧줄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밧줄을 끊어내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식만 거행한 후 사원에서 다음 해 있을 경기를 위해 보관해 둔다.

¹⁵ 프룻은 버팔로나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대 경기에서는 숲에서 채취한 덩굴들로 만든 줄을 의미할 수도 있다. 사탕야자 잎줄기들을 엮거나 시장에서 사온 플라스틱 로프가 줄로 사용되기도 한다.

3. 줄다리기의 역사적 배경

1) 줄다리기에 대한 전설/신화

덕망 있는 수도승에게서 들은 신화를 모아 메이(Mr. Moa Mey)가 1953년 캄푸치 수리아(Kampuch Surya)라는 캄보디아 저널을 통해 게재했다. 이것은 줄다리기 전설에 대한 가장 귀중한 사료로서, 떼안 프룻에 대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다.¹⁶

2) 줄다리기 전설

어느 날 신들에게 질투하던 악령의 무리가 신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면서, 시바(Shiva)의 호의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신들이 자신들과 겨룬다면, 신들이 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말을 들은 신들은 “우리는 너희가 거대한 무리를 이뤄 덤빈다 해도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 말하며 “만약 너희들이 힘겨루기를 원한대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고 말했고 악령들과 신들은 줄다리기로 힘을 겨루는 것에 동의했다. 경기의 내기는 만약 악령들이 이기면, 시바와 미팅 때나 다른 어떤 때에도 그들이 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줄다리기 경기 일정이 곧바로 다음날로 예정되었다. 우연히 신들이 시바의 궁전 안뜰 앞뒤를 걷고 있는 중에 발린(Valin, 원숭이의 신)이 경기가 있는 것을 알고, 신들에게 나가(Naga)를 줄로 사용해서 머리 쪽은 신들이, 꼬리 쪽은 악령들이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줄을 세계 잡아당기는 동안, 신 중 하나가 나가의 배꼽에 간지럼을 태우는 속임수를 책임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나가가 간지럼을 느끼면 꼬리를 움직일 것이고, 꼬리를 잡고 있는 악령들이 신들에게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당일, 신들은 악령들에게 동의를 얻어 나가의 머리 부분을 맡았고 당연히 악령들은 신들에게 패배하게 되었다.

3) 줄다리기 떼안 프룻과 힌두교 신화인 ‘우유의 바다 휘젓기(유해교반, 乳海攪拌)’

¹⁶ Buddhist Institute, Kampuch Surya, (Phnom Penh: Buddhist Institute, 1953), pp. 547-549.

스토리텔러 마오 메이는 12세기 앙코르 와트 사원(Angkor Wat Temple)의 돌 조각에서 줄다리기 경기가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신들이 나가의 머리 부분을 악령들이 꼬리부분을 잡고 있었다.”¹⁷ 캄보디아인은 힌두교의 신화에 대해서 모를지 모르지만, 고대 돌에 새겨진 ‘우유의 바다 휘젓기’ 신화에 대해서는 티안 프룻으로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도해와 명문상의 증거에 따르면, 유해교반 신화는 고대 캄보디아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9~13세기 캄보디아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신화의 근원지인 인도에서보다 그 영향력이 더 컸다.¹⁸ 첫 번째 휘젓기의 예술적 표현들은 적어도 9세기 말로 거슬러 가서 ‘쿠티스바라(Kutisvara)’라는 연구가에게 의해 알려지게 된다. 유해교반 신화가 고대 캄보디아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의 답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 조각에 있는 휘젓기의 묘사를 유심히 보면, 특히 다리의 움직임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우유 바다를 휘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뱀의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다. 12세기의 벵 멜레아(Beng Mealea)의 상인방(lintel, 문틀 위 장식한 부조들)과 앙코르 와트 돌 조각은 정확히 악령들과 신들이 우유바다를 ‘휘젓는 것’을 묘사한다. 그런데, 11세기 프라삿 스노웅(Prasat Snoeung)과 엑 프놈(Ek Phnom)의 상인방에서는 악령들과 신들이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힌두교 신화의 휘젓기는 줄다리기 때안 프룻과 잘 혼합되어 있다. 달리 말한다면, 줄다리기 때안 프룻은 이 힌두교 신화와 공존하고 있는 것이거나, 혹은 미리 존재해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들은 뒷받침하는 몇 가지 예가 있다. 예를 들어 라오스인은 캄보디아인처럼 인도화되지 않았다. 또 힌두교가 아닌 베트남의 일부 민족들과 필리핀 이프가오(Ifugao)지방, 훈두안(Hungduan)마을, 바랑가이 하파오(Barangay Hapao)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줄다리기 경기를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를 미루어 짐작할 때, 줄다리기 게임은 태곳적부터 아시아 전역의 쌀을 재배하는 공동체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민속놀이로 생각할 수 있다. 고대 캄보디아에서 ‘유해교반’ 신화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농경사회의 전통 민속놀이였던 줄다리가 아주 잘 연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⁹ 신화가 캄보디아 공동체에 전통의식적인 감각을 복돋아주었고, 유해교반 신화를 자신들의 줄다리기 티안 프룻 전통에 재연하고 통합함으로써, 쌀 재배농가에 더 나은 목적의식을 제공했던 것이다.

17 약간의 수정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 앙코르 와트의 돌 조각 갤러리의 동쪽의 남동쪽 코너, 이곳은 유해교반이 묘사된 곳으로, 악령들이 머리를 신들이 꼬리를 잡는다.

18 자세한 힌두교 유해교반 신화에 대해서는 Wendy Doniger O'Flaherty, *Hindu Myths* (London: Penguin Books, 1975), pp. 274-280를 참조.

19 일부 정보는 ‘Diverse and Common Aspects of Traditional Tug of War in East Asia’라는 주제로 2013년 4월 12일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참가 후에 추가된다.

4. 줄다리기(Teah Prot)의 의미

그런데 왜 줄다리기는 새해(설 명절)인 출롱 췧 축제에서만 연행될까? 줄다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새로운 시간과 사회질서를 재탄생시키기. 둘째, 공동체에 건강과 번영 가져오기. 셋째, 시간의 새로운 주기로 진입하게 만들기.

1) 완벽한 시간과 사회질서의 회복

시간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시간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것은 시간의 종말 때에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후 새로운 시간의 주기는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 시작함으로써 재생성 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시간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만물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는 전환기·과도기가 존재한다. 시간 주기의 반복은 연주기(年週期)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설 명절을 기념하는 것은 이전 해의 끝을 알리고, 다음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다. 태국, 라오스, 버마에서처럼 캄보디아에서도 설 명절을 기념하는 의식은 사흘간 진행된다. 이 기간은 혼란과 무질서 단계의 과도기·전환기로 본다. 평소에 허용된 일은 허용되지 않기도 하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평소에 허용되지 않았던 일을 할 것이다.

사회질서를 복원하고, 완벽한 시간의 주기를 만들려면, 어떤 의례들·의식들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로 ‘모래 산 쌓기’를 한다. 모래 산을 쌓는 것은 우주를 재 정렬한다는 상징으로써 진행되는 것이다. 줄다리기도 이 단계에서 행해진다. 줄다리기 경기는 아무 때나 엔터테인먼트의 한 부분으로써 진행될 수도 있지만, 설 명절 기간의 마지막 날에 전통 의식으로써 세 번 진행된다. 이 경기는 의심할 여지없이 힌두교 신화 ‘유해교반’을 이용하거나 혼합해 진행된다. 유해교반 신화는 잃어버린 보물들 특히, 암리타(Amrita, 불멸의 묘약)을 발견하기 위해 두 라이벌 팀이 통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줄 당기기는 완벽한 질서와 번영과 함께 새로운 완벽한 시간을 회복하는 것을 재연하기 위해 거행되는 의식이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시간, 질서와 번영을 회복하기 위해 이 의식이 거행되는 것이다.

2) 건강과 번영 가져오기

농경 사회에서, 변영은 완벽한 강수량(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은 상태)으로 기인하는데, 완벽한 강수량이 완벽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줄다리기 경기는 재창조의 행위를 의미한다. 즉, 공동체에 완벽한 비를 내리게 비는 기우제와 같은 의식이다. 남녀가 편을 가르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것은 정확하게 성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생산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긴 팀이 진 팀을 쫓아가 엉덩이를 이용해 진 팀의 몸에 부딪히는 것 등의 별칭은 생산이 가진 성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경기나 활동들은 다른 기우제 행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때에는, 노인 남성과 여성이 ‘네악 타’의 오두막으로 가서 ‘네악 타’에게 제물을 드린 후, 비가 내리도록 도움을 요청하면서, 남성과 여성은 쫓아다니며 서로 터치한다. 이것이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기우제를 드리는 모습이다.

이 의식은 줄다리기와 힌두교의 유해교반의 합작물로 나온 것인데, 휘젓기는 비를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이고 잡아당기고 휘젓는 것은 공동체의 변영을 위해 좋은 비를 불러오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시간의 새로운 주기로 진입하게 만들기

설 명절 혹은 촛롱 췌의 마지막 날에는 줄을 끊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것을 프다츠 프롯(Pdach Prot, 줄 끊기)라고 부르는데, 캄보디아인에게 이것은 ‘경기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진다. 완벽한 사회질서와 변영,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줄 여러 의식들이(끌어당기기 의식과 줄다리기 경기) 끝난 후에는, 줄을 끊음으로 묵은해가 가고 새로운(태음 12 월) 벼농사 주기를 상징하는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다. 즉, 촛롱 췌 행사는 벼농사의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다. 의식이 종료된 후에야 마을 주민들은 쌀 재배 활동이 허용된다.

4. 결론

캄보디아의 줄다리기 폐안 프롯은 수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져왔고, 사회 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도 신화인 ‘유해교반’이 캄보디아의 지역 농업 모델에 잘

들어맞았고, 지역의 요구들에 잘 부합되어 잘 정착해왔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위해 대량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고향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따라서 마을 원로·장로들의 조언은 사라져가고 있으며,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의 등장으로 인한 줄다리기 폐안 프릇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통 경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연행되고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의 먼 이야기가 되었다. 사라져가는 유산이 되는 이유는 더 이상 관심 있는 사람이 없고, 지역 원로들조차도 젊은 세대를 이 경기에 끌어들이는데 열의가 없다는 이유였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흥겹게 해 줄 댄스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더 선호한다. 더불어 줄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도 이 경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다양한 이유들로, 줄다리기는 소멸 가능성이 있는 위태로운 자리에 놓여있다. 캄보디아도 무형문화유산인 민속놀이를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전통 의식들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국제적 협력의 노력 또한 절실히 필요하고 정보교환 및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사진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 9]



[사진 10]



[사진 11]



[사진 12]



[사진 13]